



남성의학 전문의 조철희의
술직, 대담한 性

“꺼지지 않아요”

<사례 1> 60대 후반의 한 환자가 병원을 찾았다. 발기가 뜻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복용약은 효과가 없어 검사를 통해 해면체 주사요법을 실시했다. 처음 주사요법을 시행한 환자는 시간이 지나도 별 반응이 없자 무심코 추가로 한번 더 시행했다. 효과는 금세 나타났고 성공적인 성관계를 했다. 그런데 충분히 잠을 자고 있는데도 발기가 죽지 않는 것이다.

12시간 동안 발기가 이어지자 병원에 연락을 했다. “빨리 치료를 해야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살마’하며 귀담아 듣지 않다가 28시간이 지난 뒤에야 방문했다. 초기 치료가 늦어지면서 지속 발기증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를 하고 귀가한 뒤에도 다음날에도 계속 발기가 꺼지지 않았다. 결국 대학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은 상태. 영구 발기 장애가 초래된 것이다.

<사례 2> 단순한 호기심에 발기 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 친구의 주사약을 한 번 써본 40대 남성, 40시간 이상 발기가 지속되고 통증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주사요법’에도 ‘꺼지지 않아요’라는 생각으로 참았다. 별 방법이 없다면 꺼질 때까지 참았는데 이후 자연 발기는 완전히 없어졌다.
진찰 결과, 음경 원위부의 섬유화로 매우 단단해진 상태로 ‘완전 발기장애’.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

발기 장애 환자들은 비아그라·레비트라·시알리스·자이데나 등이 시판되기 전까지 주로 수술요법과 음경 해면체 주사요법을 통해 치료를 해왔다.

음경해면체 주사요법의 경우 지난 1977년 음경혈관 재건술을 시행하는 도중 하복부동맥의

확장을 위해 사용한 파파베린이 음경해면체 내로 주입된 뒤 음경발기가 2시간 이상 지속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뒤 활발히 이뤄졌다. 파파베린·펜토티민·프로스타그린딘 등을 섞은 삼중제제가 현재까지도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증중도의 발기장애에서 제일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문제는 이 주사요법의 경우 자칫 전문의 진단에 따라 정확한 용량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남용하거나 사용방법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나 또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하면 큰 ‘화근’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나이든 환자나 당뇨·고혈압 등 기질적인 발기 장애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음경해면체 주사요법의 놀라운 발기력을 전해들은 일부 사람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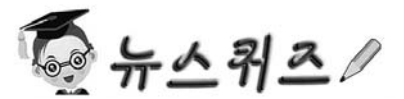
호기심에 ‘비타민과 나뉘 먹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자신도 한번 이용해보자며 환자에게 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 주사요법을 썼다가는 발기가 진화(?)되지 않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지 모른다.

그나마 ‘살마’하며 방치했다가 지속 발기증이 18시간 이상이나 계속되게 되면 치료를 했더라도 영구 발기장애가 발생, 친구나 선·후배만 원수로 변해 소수까지 이뤄진 경우도 있다.

음경 지속발기증을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을 경우 음경해면체 섬유화와 발기부전을 초래하여 법적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비노기과적 응급질환’이다.

이 때 지속 발기증이 발생하는 경우 치료까지의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지속 발기증이 12시간이 지나게 되면 육주의 심한 간질성 부종이 생기고 18시간이 경과하면 평활근의 과사소견이 나타나고 비가역적 변화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보통 12시간 이내에는 치료를 해줘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이 늦어지면서 결국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전문의비뇨기과 원장>



93. 한국축구 월드컵 대표팀 사령탑에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이 감독은 내년 2월 시작되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경기부터 대표팀을 이끌 예정입니다.
7년 만에 국가대표팀의 국내파 감독시대를 연 이 감독은 누구일까요.
①허정무 ②김 호 ③차범근 ④김정남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르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함께 풀어봅시다 < 28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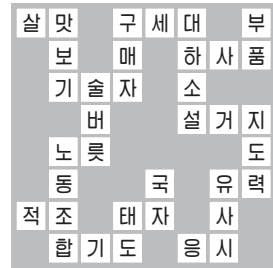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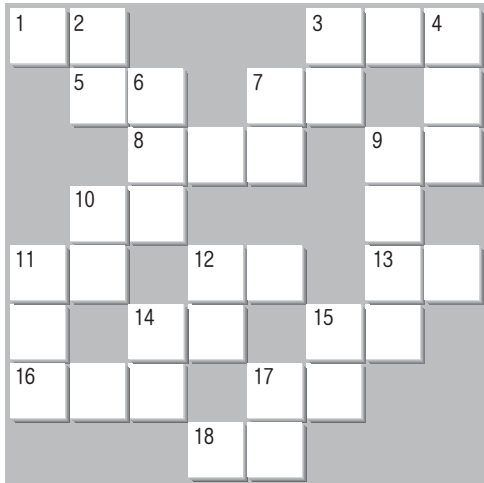
→ 가로 풀이

1. 새나 곤충의 몸 양쪽에 붙어서 날아다니는 데 쓰는 기관. 3. 통일신라 말기의 신라, 후백제, 태봉을 통틀어 이르는 말. 5. 무리를 거느려 다스림. 7. 군더더기가 없는 실지의 알맹이가 되는 내용. 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알짜 이익. 8.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진을 쳐 놓은 전선을 이르는 말. 9. 늑대선 쫓아내기 바깥, 대열의 바깥을 이르는 말. 또는 어떤 몫이나 측에 들지 못함을 이르는 말. 10. 얽은 쇠불이를 속이 비도록 동그랗게 만들어 그 속에 단단한 물건을 넣어서 흔들면 소리가 나는 물건. 11. 적이 모여 있는 진지나 진영. 12. 국가, 지방 자치단체, 은행, 회사 등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 공채, 국채, 사채, 지방채 등이 있다. 13. 한 번 침. 또는 그런 공격. 14. 나라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비용. 15. 활동력이 있

거나 활발한 기운. 16.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재화나 용역을 살 수 있는 재력이나 능력. 17. 먼저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18.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 주거나 슬픔을 달래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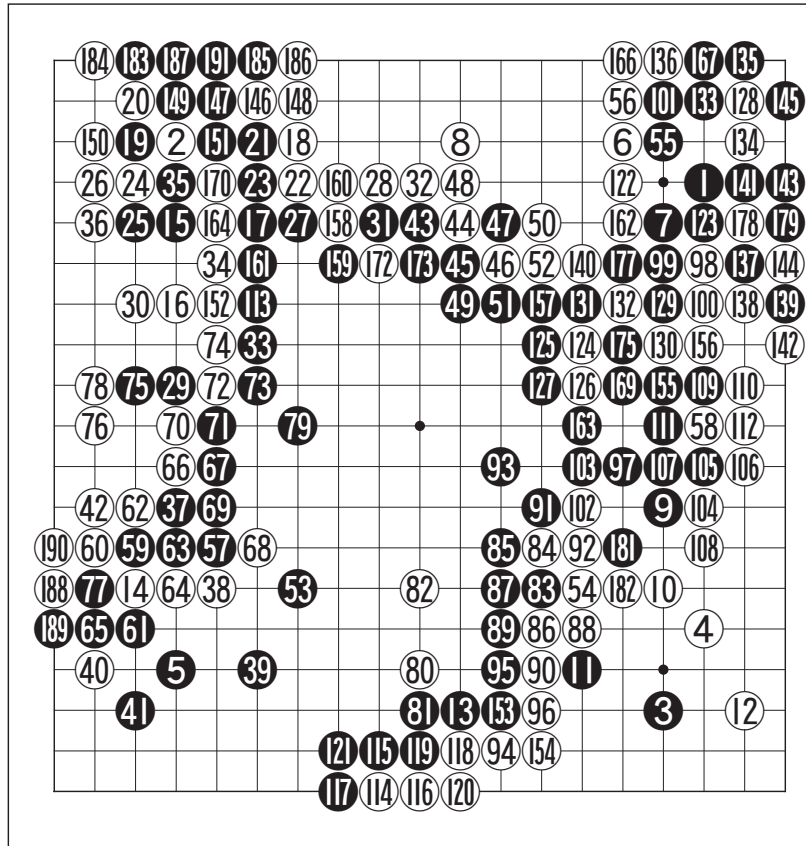
↓ 세로 풀이

2. 길, 다리, 철로, 전화, 전선 등이 완성되거나 이어져 통하게 시작함. 3. 뒤를 이어 계속함. 4. 나라의 안과 밖을 아울러 이르는 말. 6. 소나무 열매의 송이. 7. 끊어진 곳이 없이 이어져 있는 선을 이르는 말. 제도(製圖)나 설계도에서 실물 외관을 표시하는 데 쓴다. 9. 조선 정조 4년(1780)에 박지원이 지은 책. 중국 청나라에 가는 사신을 따라 갔을 때의 기행문으로 허생전, 호질 등의 글이 실려 있다. 10. 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음. 11. 혈액 속에 들어 있는 붉은색의 고형 성분. 주로 골수에서 만들어지



<함께 풀어봅시다 279회 정답>

- ▲지난주 정답자
김철현·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유선아·광주시 북구 두암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보내시면 매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제188회 전국체전
여성 일반부 결승전
白 이수민 5단 (경기도)
黑 조경진 5단 (경기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여성들의 바둑이 남성들보다 더 전투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 바둑도 엄청난 혈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금메달이 걸린 생애 최고의 한판이라서인지 생각보다 순탄한 진행이었다.

그러나 좌변의 점전에서 조경진 5단 선보인 흑 57부터 61까지 백점을 지나서 62까지 흑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점전전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단 한 번의 전투로 흑은 65로 좌하귀를 차지한데다가 79까지 중앙에

바둑 소식
충북 제일화재 PO 진출

충북 제일화재가 울산 디아체를 잡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제일화재의 조훈현은 지난 8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KB국민은행 2007한국바둑리그 준플레이오프 4국에서 울산 디아체의 백홍석을 잡고, 팀을 플레이오프전으로 견인했다. 제일화재는 첫 대국에서 선취점을 빼앗겼으나 배준희, 김주호가 나리 두 판을 따내며 따라 뒤집기 승부를 연출했다.
디아체를 3승1패로 제압한 제일화재는 7일부터 열리는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정규리그 2위팀인 서울 신상건설과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다툰다. 대구 영남일보보 정규리그 1위를 차지,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했다.

굿모닝 잉글리쉬 <1051>
I feel relaxed and less stressed out now.
편안한 느낌이구요, 스트레스도 훨씬 줄었어요.
A : It's nice to take a vacation, isn't it?
B : Yes, it's true. I feel relaxed and less stressed-out now.
A : So do I.
B : Are we going to visit some other places tomorrow?
A : Victoria! I love the city.
A : 휴가를 내니까, 참 좋네요. 그렇죠?
B : 정말 그래요. 편안한 느낌이구요, 스트레스도 훨씬 줄었어요.
A : 저도 그래요.
B : 내일 다른 곳에 가볼 계획이세요?
A : 빅토리아! 저는 그 도시를 좋아하거든요.
* It's nice to take a vacation, isn't it?
= Isn't it nice to take a vacation?
* stressed-out : 스트레스가 줄은
* relaxed : 편안한
* So do I. = Me too. = I feel the same.

오하오우 니혼고 <1051>
みっかぼうずですか。
작심삼일 이군요
A : あれ。禁煙(きんえん)宣言(せんげん)をしたはずなのに、そのタバコは何ですか。
B : まあ、そういうことです。
A : みっかぼうずですか。残念(ざんねん)です。
A : 어머! 금연 선언을 했을텐데. 그 담배는 뭐예요?
B : 뭐! 그렇게 된 거예요.
A : 작심삼일 이군요. 안타깝네요.
みっかぼうず : 싫증나서 오래 지속하지 못함,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はず : ~했을 터

니하오 쑹구위 <28>
来不来?
올거니?
A : 姜老师, 明天忙不忙?
jiāng lǎoshī, míngtiān máng bù máng?
姜老师, 明天 忙 不 忙?
B : 不忙, 为什么?
bù máng, wèi shénme?
不忙. 为什么?
A : 明天不来我家玩儿?
míngtiān lái wǒ jiā wánr?
明天 来 我 家 玩 玩?
B : 好的。
hǎo de.
好的.
A : 姜老师, 内일 何事세요?
B : 아니, 뭐?
A : 내일 저희 집에 놀러 오실래요?
B : 좋아.
明大 [míng tiān] 내일
不 [bù] 막판다
玩儿 [wánr] 놀다

한자 이야기 <668>
膠柱鼓瑟(교주고슬)
아교 교, 기동 주, 두드림 고, 비파 슬
거문고의 기러기발을 아교로 붙여 놓고 거문고를 탄다는 뜻이다. '기러기발(柱)'은 거문고의 줄을 받고 있는 기둥으로 이리저리 움직여서 음률(音律)을 조정한다. 그런데 이것을 아교로 붙여 버린다면 조율(調律)할 수 없어 연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교주고슬'은 아주 고지식해서 변통(變通)할 줄 모르는 사람을 비유하며, '교주조슬(膠柱調瑟)'이라고도 한다.
전국시대 조(趙)나라에는 '완벽(完璧)'이라는 고사의 인상여(蔣相如)와 '문경지교(聞慶之交)'를 맺은 염파(廉頗) 장군이 있었다. 또 조사(趙奢)장군의 아들로 아버지의 병서(兵書)를 맹목적으로 습득하던 조괄(趙括)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당시 진(秦)나라의 대군은 조나라를 공격해 와서 "진나라가 무서워하는 것은 내만 조사의 아들 조괄이 장수가 되는 것이다."라고 소문을 냈다. 왕은 이 말을 믿고 염파 대신 조괄을 장수로 교체하려 하였다. 인상여는 왕에게 다음처럼 간언(諫言)하였다. "조괄은 거문고의 기둥에 아교를 칠해서 고장시켜 놓고 거문고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조괄은 한자 아버지가 남긴 글을 잘 읽었을 뿐이고 임기응변(臨機應變)할 줄 모르는 인물입니다." 결국 조괄은 고지식하게 병서대로 대전(對戰)하다가 조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史記·廉頗蔣相如列傳)

더마플라스트 밴드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